■ 민족문화연구 제89호(2020.11.3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271-296.
http://doi.org/10.17948/kcs.2020..89.271

20세기 초 미주 한인 소설 〈부도〉에 대한 고찰

이지영(李智瑛)*

목 차

1. 서론
2. 작품 경개
3. 작품 구성의 특징
4. 허구적 성취로서의 소설쓰기
5. 결론

국문초록

〈부도〉는 1세대 미주 한인 전낙청이 한글로 쓴 미발표 장편소설이다. 19세기 말 평안도 정주를 배경으로 한 부도와 외대의 사랑이야기가 중심으로, 부도와 외대가 서로를 점차 사랑하게 되는 과정과 외대가 다른 남성과 혼인한 이후에도 지속되는 이들의 사랑을 섬세하고 그리고 있다. 외대의 혼인 이후 부도는 외대 외에도 수무・우목・기화 등 다른 기혼여성들과도 동시에 교제하는데, 외대가 병으로 죽고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부도와 여성들은 칠학산에 모여 음주가무를 즐기다 홀연 사라진다. 〈부도〉에는 〈구운몽〉・〈앵앵전〉・〈홍루몽〉을 읽었던 작자의 독서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여러 여성과 한 남성의 사랑은 〈구운몽〉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랑이 혼인으로 이어지지 않고 여성 주인공이 비극적으로 죽는 결말은 〈앵앵전〉과 〈홍루몽〉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전낙청은 자신의 젊은 시절 고향에 대한 기억을 소설에 수용하고 있다. 즉,

* 충북대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자신과 출생연도가 비슷한 주인공 부도를 통해 자신이 기억하는 고향 정주의 풍경과 사람들의 삶을 세밀하게 그린다. 그러나 부도의 뛰어난 상업수완이나 여러 여성들과의 파격적인 사랑은 작자의 경험이 아닌 허구이다. 전낙청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이민자로 살면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을 소설적 허구를 통해 성취했던 것이다.

주제어: 〈부도〉, 미주 한인, 전낙청, 이주민, 평안북도 정주, 〈구운몽〉, 〈서상기〉, 〈앵앵전〉, 〈홍루몽〉, 허구적 성취, 이민자 소설.

1. 서론

20세기를 전후해서 우리 문화지형은 크게 바뀌었다. 19세기 말까지 향유되던 소설들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소설들이 수입되었다. 20세기 초 신문과 잡지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연재되던 소설들은 이전의 소설과 서사나 문체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新小說'들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舊小說'의 영향도 지속되어 이른바 '근대소설'의 작자들 중 상당수는 어린 시절 '구소설'의 독자였다고 밝히고 있다.[1] 그렇다면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더라도 전통문화의 영향 역시 상당기간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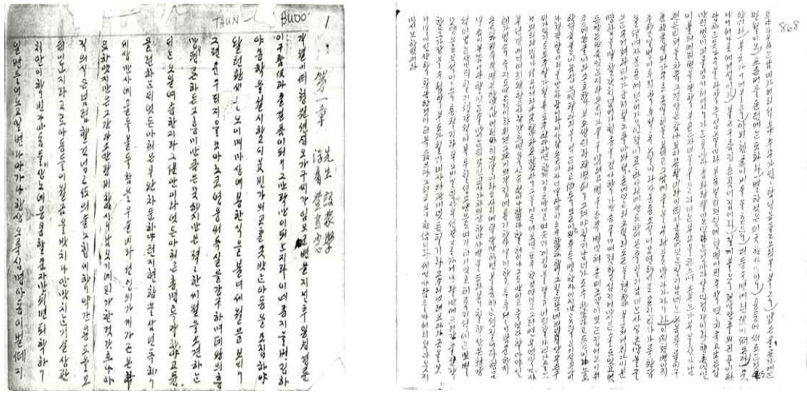
이 점에서 전낙청이 쓴 소설 작품들은 흥미로운 사례이다. 전낙청은 1876년에 태어나서 1904년에 미국 하와이로 이주한 첫 세대 미주 이민자이다.[2] 이주 후에 오렌지 농장 등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전낙청은 8편의 소설과 논설문을 手稿本의 형태로 남겼는데,[3] 영어로 글을 쓸 수 없었기에 소설은 모두 한글로 썼다.[4] 선행연구에서는 전낙청의 소설이 조선의 전통문화와 이민 후 경험한 미국문화의 混種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했다.[5]

---

1) 「나의 문학 10년기」, 『문장』 2권 2호, 1940. 2.
2) 전낙청의 생애 및 작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황재문 편역, 『구제적강도』, 소명출판, 2020, 서문 참조.
3) 같은 책, 10면.
4) 전낙청의 소설은 유일한이나 강용흘 등 미국에서 교육 받고 영어로 소설을 쓴 다른 작가와는 차이를 보인다. 유일한과 강용흘의 소설에 대해서는 유선모, 『미국 소수민족 문학의 이해』, 신아사, 2001, 42-66면; 김욱동, 『강용흘, 그의 삶과 문학』, 서울대 출판부, 2004 참조.
5) 전낙청 소설의 혼종성에 대해서는 황재문, 「〈구제적 강도〉 연구: 1세대 재미한인의 체험과 문학적 혼종성」, 『춘원연구학보』 제13호, 춘원연구학회, 2018 참조. 이밖에 전낙청 소설에 대한 연구

전낙청 소설은 배경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과 달리 조선을 배경으로 한 〈홍경래전〉·〈홍중래전〉·〈부도〉는 문체나 형식에서 고소설과의 친연성을 강하게 드러낸다.[6] 그중에서도 〈부도〉[7]는 작자와 출생연도가 비슷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으며 남녀 주인공이 〈구운몽〉·〈서상기〉를 읽고 토론하는 대목도 있어, 이들 작품이 〈부도〉의 창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8]

이 글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던 〈부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고소설의 독서경험과 고향에 대한 기억이 작품에 반영된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나아가 고된 노동을 하면서 소설을 쓴 이유를 찾아볼 것이다.



〈그림〉 전낙청의 부도 1면(왼쪽)과 868면.

로는 이지영, 「20세기 미주 이민 서북인의 홍경래란에 대한 기억」, 『정신문화연구』 통권15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a; 「반란에 대한 기억 혹은 기대」, 『고전과해석』 제26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8b; 「20세기 초 미주 한인 소설에 나타난 판소리 관련 서술에 대한 고찰」, 『판소리연구』 제48집, 판소리학회, 2019; 전우형,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공존: 미주 이민자 전낙청의 사랑에 관한 상상」, 『대중서사연구』 제26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20 등이 있다.

6) 세 작품이 모두 200자 원고지 2000매가 넘는 장편이다. 〈부도〉의 경우 매면 14행(매행 26-28자)으로 총 705면, 이후 28행(매행 40-42자)으로 159면을 더 필사하여 총 868면에 걸쳐 필사되어 있다. 대략 200자 원고지 2245매 분량이다.

7) 〈부도〉는 현재 미국 USC대학에 복사본으로 소장되어 있다. USC대학에 소장하게 된 경위 및 현황에 대해서는 황재문 편역, 앞의 책, 서문 참조.

8) 전낙청이 〈부도〉를 쓴 시기는 1930년 무렵일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책, 13면.

2. 작품 경개

이 소설은 19세 후반 평안북도 정주를 배경으로 주인공 부도가 여덟 살에서 열여덟 살이 될 때까지의 삶을 그리고 있다. 부도의 일생은 부도가 오가구의 서당에서 공부하는 시기와 상점에서 일하는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전체 868면 중에서 서당에 다니는 내용은 61면까지 서술되어 있다. 소설 대부분은 제열의 상점과 응도의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동안 여러 여성들과 사랑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여러 여성들과의 '비밀관계' 속에서도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것은 부도와 외대의 사랑이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부도〉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부도와 외대의 사랑

부도는 집안 형편 때문에 글공부를 계속하지 못하고 제열이네 상점에 사환으로 들어간 소년이다. 제열의 어린 누이동생 홍은 부도가 이전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자신을 살린 은인인 것을 알면서부터 부도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부도는 부잣집 막내딸로 제멋대로인 홍의 관심을 부담스러워 한다. 부도는 홍보다는 단정한 제열의 딸 외대에게 호감을 느끼는데, 부도보다 세 살이나 많은 외대에게는 부도가 '어린 것'에 불과하다. 부도를 이성으로 생각지 않기에 부도와 외대는 스스럼없이 지내면서 서로에 대한 호감이 점차 깊어진다.

이들의 관계는 홍이 외대와 부도가 가까이 지내는 것을 질투하여 외대에게 "[부도를] 장차 녜 서방을 삼을 터이냐?"고 말하면서 변화한다. 이런 홍의 말을 계기로 부도를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외대는 오히려 부도를 남자로 보게 된다.

미묘한 감정의 변화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허물없이 지내는데, 부도는 외대가 글을 아는 유식한 여자라는 점을 알게 되고 또 부도에게 한시 짓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이들의 감정은 점차 사랑으로 변한다. 그러나 외대는 부도에 대한 감정을 아직 사랑으로는 인정하지 않기에, 부도와 홍의 혼담이 오가자 "우리 홍은 턴복(天福) 잇도다."하며 기뻐한다. 그렇지만 이들의 혼담이 깨지자 부도가 홍에게서 벗어났다며 좋아하는 모순된 감정을 드러낸다.

그러던 중 외대의 혼담도 오가는데, 외대는 부도를 칭찬하는 집안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점차 부도를 자신의 남편감으로 확신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구애하게 된다. 그러나 부도는 외대보다 애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첫째는 외대 집안에 비해 자신의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홍과의 혼담이 오갈 때 부도의 어머니가 뜻밖에도 상인의 집안이라며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부유한 상인 박향소의 집안에서 외대에게 청혼을 하는데, 홍이 신랑감이 경박자라고 폭로하면서 외대의 혼담은 깨진다. 이러한 고비를 넘기면서 외대와 부도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져 가고, 부도는 외대 부모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陞補試에 나가 初試 壯元을 한다. 그런데 부도가 초시 장원을 하자 부도의 어머니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상인의 딸인 외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안 외대의 부모 역시 자존심이 상하여 둘의 혼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외대는 절망감에 자결을 시도하나 부도가 발견하여 살려내고, 부도도 어머니가 가두는 바람에 죽을 고비를 겪은 후에 이들은 끝내 부부 되기를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 외대는 결국 인물이 준수하고 집안도 부유한 사원에게 시집간다.

2) 부도와 기혼 여성들의 비밀관계

외대는 시집가서 시부모를 잘 모시고 사원의 사랑을 받지만, 친정에 올 때마다 부도와 계속 만나 술을 마시고 입을 맞춘다. 사원은 이들의 관계를 의심하지만, 외대가 정색하고 부인하자 더 이상 따지지 않는다.

부도는 외대 외에도 우목·노화·수무 등 유부녀들과도 차례로 만나 '비밀관계'를 유지한다. 외대가 이를 뒤늦게 알고 질투하지만, 부도와 자신의 관계가 공인될 수 없는 만큼 부도가 다른 여성들과 만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외대는 이들의 관계를 인정하고 함께 모여 담소를 나눌 만큼 친밀한 사이가 되어 부도를 '공유'한다. 네 여인이 설날이나 단오·추석과 같은 명절 때 친정을 방문하면 부도는 이들과 함께 만나서 잔치를 베풀며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다.

그러던 중 부도는 장사를 하러 평양에 가서 두 명의 기생을 더 만난다. 한 사람은 평양 최고의 名妓로 부도가 陞補 初試에서 장원하던 날 잔치에서 부도와 對舞했던 란교이고, 또 다른 기생은 춤 솜씨에 반하여 부도를 따르게 된 옥희이다. 소설 후반부에는 부도가 평양의 기생과 정주의 네 여성들을 오가면서 풍류를 즐기는 장면이 상세히 서술된다.

이처럼 여러 여성들과 어울리지만 부도가 특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여전히 외대이다. 부도에게 외대는 첫사랑일 뿐 아니라 시를 함께 주고받으면서 '眞情'을 나눈 상대이기 때문이다. 외대는 남편 사원이 단소와 국수 등의 여성과 비밀관계를 갖는 것을 묵인하는 한편, 자신도 남편 대신 부도와 사람들이 모이는 보름날 달맞이 놀이에 단둘이 나갈 만큼 대담하게 행동한다. 외대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부도와 비록 혼인은 못하였지만 부도에 대한 자신의 지조가 변함없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3) 외대의 죽음과 사라진 남녀

그러나 외대와 부도의 관계는 외대가 장수라는 사환 아이와 사귀면서 사이가 벌어진다. 부도는 우목에게 이 소식을 듣고 덤덤하게 반응하지만, 장수와의 관계를 들킨 외대가 성을 내면서 "닉가 네 게집이던야? 싀기(猜忌)을 얼골에 닉비치우고 졍담(情談)이니 덕담(德談)이 하니 나는 다름 사람과 말도 못할이란 말이가?"라고 하자 크게 상심하여 다시는 외대를 찾지 않겠다고 단언한다. 노화나 우목, 수무와 함께 어울리면서도 외대를 각별하게 생각한 부도로서는 자신을 장수처럼 불륜상대로 치부하는 외대의 말에 크게 상처를 입었던 것이다.

그런데 부도와 헤어진 뒤 외대 역시 상심한 나머지 폐병에 걸려 죽어가고 외대의 시댁에서는 아들에게 병이 전염될까 염려하여 외대를 친정으로 보낸다. 친정에 온 외대는 마침 평양에 장사 갔다가 돌아온 부도와 재회하면서 화해하고 이후 부도는 외대를 정성껏 돌보아 회복시킨다.

이때 평양기생 란교는 기생노릇을 그만두고 칠학산 자운동에 정착하고자 田莊을 마련하고 외대·부도와 칠학산 극락암에서 만나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즐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외대의 병도 점차 낫지만, 부도가 평양 간 사이 사원이가 찾아와 억지로 동침하는 바람에 외대의 병은 다시 악화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도는 분노하면서 외대가 더 이상은 살 수 없겠다며 절망한다. 결국 외대는 부도에게 향물로 목욕을 시켜달라고 부탁한 후 죽는다.

외대의 죽음 이후 부도는 란교 등의 위로 속에 슬픔을 잊는다. 란교는 칠학산 자운동에 새로 집을 짓고 부도와 기생 옥희・백주 등과 낙성연을 벌인다. 그리고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우목・노화・수무까지 자운동으로 모여들어, 함께 밤새도록 가무와 음주를 즐긴다. 다음 날 아침 극락암의 묘진대사가 육환장을 끌며 자운동에 가니 부도와 여섯 여인은 간 곳이 없고 일곱 개 청강석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3. 작품 구성의 특징

1) 고소설의 수용과 변형

조규익은 20세기 전반 『신한민보』에 실린 미주 한인 소설에 대한 연구에서 민족과 투쟁이 강조되던 이전 소설과 달리 3.1운동 이후에는 "애정모럴의 탐구"를 주제로 한 소설들이 등장했다고 하였다.[9] 새로운 애정관과 전통적인 애정관의 차이를 체감하는 미주 한인에게 새로운 애정모럴의 탐구야말로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 애정을 전면에 내세운 〈부도〉의 내용은 당시 『신한민보』에 수록된 소설의 경향과도 일치한다.

그런데 불륜에 대해 부정적인 『신한민보』 수록 소설들과 달리 〈부도〉는 한 남성을 동시에 사랑하는 여러 유부녀들의 이야기를 낭만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여성인물 외대는 비극적으로 죽는다. 이러한 서사 내용은 당시 미주 한인 소설의 영향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이와 관련해서 고려해보아야 하는 것은 고소설의 영향이다.

〈부도〉는 작자의 또 다른 소설 〈홍경래전〉・〈홍중래전〉과 함께 필사방식

9) 조규익, 「제1세대 재미한인 작가들의 소설」, 『숭실어문』 제15집, 숭실어문학회, 1999.

이나 문체 면에서부터 고소설의 흔적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즉, 띄어쓰기 없이 필사한 것이나 '각설'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지라','-더라','-이라' 등의 종결어미를 사용한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이는 전낙청 소설이 전통문학의 영향 하에 창작되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단서이다. 전낙청은 28세에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며, 고국에서 한문을 포함한 전통적인 교육을 받았다.[10] 따라서 이민 이후에도 그가 즐겨 읽었던 소설은 고소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노동자로 이민 간 다른 미주 한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조선 책을 수입해서 미주 한인들에게 판매하던 태백서관의 1919년 광고에 〈유충렬전〉·〈구운몽〉·〈소대성전〉·〈숙영낭자전〉 등이 포함된 것을 보더라도[11] 1세대 미주 한인들이 고소설의 독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부도〉에는 주인공 부도나 다른 등장인물들이 〈소대성전〉·〈임호은전〉·〈구운몽〉과 〈서상기〉·〈수호지〉 등을 읽는 장면들이 나오고, 〈유효공선행록〉의 내용이 여러 차례 언급되기도 한다.[12] 따라서 이러한 고소설의 독서경험이 〈부도〉의 창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고소설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작품은 〈구운몽〉이다. 여러 여성이 한 남성을 다툼 없이 사랑하는 〈부도〉의 서사구도는 〈구운몽〉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도와 여성들의 칠학산 자운동에서 음주가무를 즐기다가 사라지고 묘진대사가 이를 확인하는 마지막 대목은 〈구운몽〉에서 성진과 八仙女가 잔치를 벌이다가 육관대사가 나타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

〈구운몽〉의 영향은 19세기 연행되던 공연물과도 관련이 있을 듯하다. 〈부도〉에는 부도가 평양에서 기생 란교와 함께 보통교 다리에서 "팔선녀 노리"를 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 장면에 묘사된 팔선녀 놀이는

10) 전낙청의 조카 전경무는 그의 삼촌이 고향 마을에서 존경받는 학자였다고 하였다. 전경무의 미간행 영문 자서전 *Quest in Exile*, USC대학 도서관 소장 원고본 참고.

11) 조규익, 「제1세대 재미한인 작가들의 국문소설」, 『우리문학연구』 제11집, 우리문학회, 1998, 299면.

12) 예를 들어 주인공 부도가 범인으로 몰렸을 때, 심문하는 과정에서 중군이 "진사 강형수의 집에 노덩이 밧게 온 사람 업는ᄃᆡ 혼자 잇든 강형수의 부인이 란자한 칼을 맛고 죽어스니 그것 누구의 작간일고"라고 묻자 부도가 "의심업는 노덩의 작간이지오."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부도』, 244-245면.

"여들기 기싱이 보통교 우에 가루막아 안고 형진이가 셩진의 힝식으로 수레 얼근하게 취하야 다리에 와서 여러 선네을 보고 합장지비한 후 (…)"로 시작하는데, 팔선녀 놀이는 당대 산대놀이의 레파토리로도 사용되던 것이어서,[13] 작자가 소설뿐 아니라 공연물로도 〈구운몽〉을 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목에서 부도는 중의 옷의 입고 성진의 역할을 한다. '浮屠'는 부처를 뜻하기도 하지만 승려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구운몽〉의 '성진'을 의식하여 주인공을 '부도'로 命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운몽〉은 또한 부도와 외대의 서로에 대한 감정이 점차 깊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가 된다. 소설에서 부도는 외대가 〈구운몽〉을 즐겨 읽는 것을 알고 난 뒤, '글 아는 여자'라며 호감을 느끼면서도 "방탕한 글"을 읽는다며 걱정한다. 한편 외대는 "지미가 씨보송이 ᄂᆡ음사[내음새]"가 나는 〈구운몽〉을 심심하면 즐겨 읽곤 했는데, 사랑하는 부도를 애타게 기다릴 때에는 "글어케 달고 싀고 ᄆᆡᆸ고 쌉잘하든 글리 졸디에 변하야 구린 ᄂᆡᆷ시가 코을 찔으ᄂᆞᆫ" 듯하고 "어린아이들 작난하며 주고 밧고 하ᄂᆞᆫ 말"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사랑에 눈뜨기 전 외대에게 〈구운몽〉은 사랑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소설이었는데, 자신이 실제로 사랑을 경험하게 되자 소설이 시시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외대는 "우리 랑인(兩人)의 사정을 긔록(記錄)하야 전하면 후세 사람들이 셩경현던(聖經賢傳)으로 숭ᄇᆡ(崇拜)"할 것이라 하면서 자신과 부도의 사랑이 〈구운몽〉을 능가한다고 자부한다. 〈구운몽〉에 대한 이러한 외대의 언급에서, 소설의 허구 서사가 현실 경험의 생생함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작자의 인식이 엿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사랑은 그리 만만치 않아서 외대는 기대와 달리 부도와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자 외대는 부도에게 〈구운몽〉이 자신의 일보다 낫다며 다음과 같이 푸념한다.

외ᄃᆡ: "그 젼에ᄂᆞᆫ 구운몽 기사가 ᄂᆡ의 자미(滋味)만 못하더니 지금은 ᄂᆡ의 일

13) 사진실, 「山戱와 野戱의 공연양상과 연극사적 의의」, 『고전희곡연구』 제3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01.

보다 승(勝)하다. 팔기(八個) 네자(女子)의 결국(結局)은 ᄆᆡ우 조흔ᄃᆡ ᄂᆡ의 결국(結局)은 비ᄋᆡ(悲哀) 쑨이니 ᄂᆡ가 선모(羨慕)한다."

부도: "구운몽은 지은 글이오 우리의 일은 사실이니 글과 사실이 갓흘소냐?"[14]

외대는 〈구운몽〉보다 재미있는 사랑을 한다고 자부했었지만 이제는 悲哀뿐인 자신의 사랑보다 허구인 〈구운몽〉이 낫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외대의 푸념에 대해 부도는 '지은 글', 즉 허구는 사실과 다를 수밖에 없다며 위로한다. 소설은 현실이 아니기에 행복한 결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현실에서는 행복한 결말이 어렵다는 비관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구운몽〉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또 다른 소설이 중국의 〈서상기〉이다. 소설에서 부도는 노화에게 〈서상기〉를 〈구운몽〉과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글[*구운몽]은 문장 김춘ᄐᆡᆨ(金春澤)이 지은 글이다. 김(金)이 글은 문장이지만 인격(人格)은 셔푼자리가 못 된다. 그 안히의게 괄ᄃᆡ(恝待)을 밧고 그 안ᄋᆡ을 소박(疏薄)하얏다. 무슨 의미로 이 글을 지은 짐작할 것이다. 원미지가 서상기(西廂記) 섯ᄂᆞᆫᄃᆡ 서상긔(西廂記)ᄂᆞᆫ 자긔(自己) 사실을 당군서(張君瑞)의 일홈을 비러 발포(發表)한 것이니 그런 고로 구운몽은 무근(無根)한 말인 고로 음탕(淫蕩)스러운 듯하나 린란[紊亂]치 안코 서상긔ᄂᆞᆫ 사실인 고로 광탕무려(狂蕩無禮)한 말을 마음ᄃᆡ로 긔록하얏다. 만일 우리의 일을 다른 사람이 긔록(記錄)하게 되면 ᄒᆡ졍을 주장하지만 ㉠너나 ᄂᆡ가 혹 수무 외ᄃᆡ가 긔록하게 되면 마음ᄃᆡ로 소상 분명이 긔록할 수 잇다. 다른 사람은 짐작만 잇고 ᄂᆡ용(內容) 비밀(祕密)을 몰으ᄂᆞᆫ 고로 관게자(關係者)가 문칙(問責)하면 ᄃᆡ답(對答)할 말이 업슨 ᄭᅡ닭이오 당사자가 쓰면 다른 관게자(關係者) 말 못함은 동힝(同行)한 비밀(祕密)인 고로 명여(名譽) 신분을 위하야 일홈 변깅(變更)할 쑨이니 이을 미루어 보면 ㉡김은 소원(所願)을 셩취(成就) 못하고 원하ᄂᆞᆫ 의사(意思)을 발포(發表)함이오 원은 소원(所願)을 셩취(成就)한 자라. 자기의 셩취을 자랑함이니 일후 혹 나나 네가 자랑하기 원하면 마음ᄃᆡ로 할 거신ᄃᆡ 신분상 관게가 되면 일홈만 변깅(變更)하ᄂᆞᆫ 것도 조흐니라.[15]

14) 『부도』, 823면. 〈부도〉의 원문은 일부를 제외하면 전통적인 한글소설 필사본처럼 띄어쓰기 없이 한글로만 필사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 띄어쓰기 및 한자병기를 하고 필사본에 적힌 면수를 적는다.

15) 『부도』, 629면.

위 대목에서 부도는 김춘택의 〈구운몽〉을 元稹의 〈서상기〉(〈앵앵전〉)[16]와 대비하고 있다. ㉡에서 김춘택은 소원성취를 못하여 소설로 의사를 발표했고 원미지는 소원을 성취하였기에 이를 자랑했다고 하면서, 〈구운몽〉은 완전한 허구인 데 반하여 〈서상기〉는 작자의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원진의 소설은 자신의 경험을 주인공 장군서의 이야기로 변장한 것으로, 완전한 허구인 〈구운몽〉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만 생생하게 서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여기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므로 ㉠에서 부도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면 자세히 서술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런데 다음 대목을 보면 원미지가 '소원을 성취한 자'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성과의 혼인을 의미하지는 않는 듯하다.

> 당나라 ᄯᅢ 연연 잉잉이란 두 네자(女子)가 잇서ᄂᆞᆫᄃᆡ 잉잉의 모형데(母兄弟) 사촌(四寸)되ᄂᆞᆫ 원미지(元微之)가 잉잉이와 관계가 잇셔 상사(相思)하ᄂᆞᆫᄃᆡ 잉잉의 모(母)ᄂᆞᆫ 자기 ᄌᆡ질(甥姪)되ᄂᆞᆫ 뎡항(鄭恒)과 결혼코져 함으로 당군서(張君瑞)의 일홈을 빌어 서상긔을 지어시니 세상이 알기을 당군서(張君瑞)와 잉잉이가 상사(相思)하고 원미지와 연연은 ᄲᅡ져스니 그 역(亦) 모호한 것이 안이냐?[17]

위 인용문에서 부도는 원미지가 앵앵과 자신의 이루지 못한 사랑을 장군서와 앵앵의 이야기로 바꾸어 소설을 썼다고 설명하였다.[18] 그렇다면 앞서 '소원을 성취'했다는 것은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랑의 경험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원진이 사랑했지만 혼인하지 못한 자신의 경험을 傳奇로 창작했다는 속설을 수용한 것이다.[19]

이처럼 전낙청은 〈서상기〉와 〈구운몽〉을 서로 다른 종류의 소설로 인식하

---

16) 〈서상기〉는 元稹이 아닌 王實甫의 所作이다. 전낙청은 원진이 지은 당나라 傳奇 〈앵앵전〉을 이를 바탕으로 한 희곡 〈서상기〉로 혼동하고 있다.

17) 『부도』, 105면.

18) 원진의 〈앵앵전〉에서는 앵앵과 장군서가 사랑을 이루지 못하였고 왕실보의 〈서상기〉에서는 사랑을 이루는 것으로 결말을 맺고 있기에 〈부도〉에서 지칭하는 〈서상기〉가 〈앵앵전〉임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 陳寅恪은 〈앵앵전〉이 원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최진아, 「당대 애정류 전기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2, 76면에서 재인용.

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서상기〉는 원진이 자신의 경험을 쓴 것이고 〈구운몽〉은 허구적으로 지어낸 것인데, 〈서상기〉는 현실의 경험이기에 비극으로 끝나고 〈구운몽〉은 완전한 허구이기에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는 것이다. 이는 전낙청의 소설창작과도 연관되는데, 전낙청은 이 두 가지 방식을 접목시키고 있다. 즉, 부도와 외대는 〈구운몽〉을 의식하면서 '소설'보다 나은 사랑을 꿈꾸지만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체념한다. 사랑하나 혼인은 이루지 못하는 내용은 〈앵앵전〉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외대가 비극적으로 죽는 내용은 〈앵앵전〉과는 무관하다.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상심하다가 죽은 비련의 여주인공 외대의 형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다음의 구절이다.

> ᄂᆡ가 젼ᄉᆡᆼ(前生)에 무슨 죄로 이 세상 와서 이 모양이 되ᄂᆞᆫ가? ᄂᆡ 우미인(虞美人)이나 림ᄃᆡ옥(林黛玉)을 슯허하야스나 나ᄂᆞᆫ 그만도 못ᄒᆞ니 박명(薄命) 박명(薄命)ᄒᆞ야 날 갓흔 박명(薄命)이 이십(二十) 춘광(春光)으로 초일기하고 갈 줄은 남은 고사하고 자신도 ᄉᆡᆼ각지 못한 일여로다.[20]

위 인용문에서 외대는 자신의 처지가 우미인이나 임대옥보다도 못하다고 한탄한다. 임대옥은 〈홍루몽〉의 여주인공이다. 〈홍루몽〉에서 임대옥은 가보옥을 사랑하지만 가보옥이 상황에 떠밀려 다른 여성과 혼인하자 절망감에 괴로워하다 죽는다.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의 임대옥은 여러 모로 외대와 유사하여, 이 부분에서 〈홍루몽〉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한다.

〈부도〉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홍루몽〉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묘진대사는 육환장을 짚고 가서 부도와 여성들이 흔적 없이 사라진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장면은 음주가무를 즐기던 주인공과 여성들이 속세를 떠난다는 점이나 육환장을 짚은 승려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구운몽〉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구운몽〉에서는 인간세상의 부귀를 모두 누린 양소유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순간 육관대사가 나타나 꿈에서

20) 『부도』, 811면.

깨어난다. 반면에 〈부도〉에서는 부도와 여성들이 사라진 뒤 묘진대사가 이들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며, 칠학산 여기저기에서 전에는 보이지 않던 청강석을 발견한다.[21] 사라진 남녀가 청강석으로 변한 것은 돌로 생겨난 가보옥이 망망대사와 묘묘진인의 도움으로 인간세상을 경험한 뒤 다시 돌이 된다는 〈홍루몽〉의 내용을 차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살펴본바, 〈부도〉는 〈구운몽〉을 비롯하여 〈서상기〉(〈앵앵전〉), 〈홍루몽〉 영향 안에서 창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소설에서 성진/양소유와 팔선녀, 장군서와 최앵앵, 가보옥과 임대옥의 관계 양상은 각각 다르다. 〈구운몽〉이 양소유가 여러 여성들과 사랑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내었다면, 〈앵앵전〉은 사랑하면서도 결국 혼인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남녀의 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홍루몽〉에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상심해서 죽게 되는 여성이 등장한다. 전낙청은 이들 소설에 나타난 다양한 남녀관계를 차용하여 새로운 사랑이야기를 창작하였다. 〈구운몽〉에서 한 남성과 여러 여성의 一對多 사랑을 끌어오고[22] 사랑이 혼인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서상기〉와 〈홍루몽〉의 내용을 차용하였다.

다만, 주인공이 '혼인한' 여러 여성과 사랑을 나눈다는 점은 기존의 고소설과는 이질적이다. 고소설을 의식하면서도 자신의 관심에 맞추어 변형함으로써 혼인을 넘어선 자유로운 사랑의 형태를 그려내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2) 고향 정주에 대한 기억의 소환

소설에서 부도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소설로 쓰면 "마음대로 소상 분명히 기록"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는 전낙청이 자신의 경험을 소설에서 활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서 〈부도〉가 전낙청의 고향인 평안북도 정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주인공은 작자와 출생연도가 비슷한 것이 주목

21) 『부도』, 868면. "사방을 도라보니 칠학산은 쳥강석이 업는 산인ᄃᆡ 칠ᄀᆡ 쳥강석이 북두칠셩 모양으로 여기 더기 잇고 데 룩ᄀᆡ 석에ᄂᆞᆫ 빗별 모양으로 보석이 이스니 통 팔ᄀᆡ라."

22) 전우형은 〈구제적 강도〉의 주인공 잭 전을 전낙청의 페르소나로 보면서 잭 전이 여러 여성들과 연애하는 것은 "자유연애가 지니는 모순과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있다고 보았다. 전우형, 앞의 글, 2020 참조. 그런데 〈부도〉에 미친 〈구운몽〉의 영향을 고려할 때 〈구제적 강도〉의 일대다 사랑 동아시아의 전통의 영향이 서양식 자유연애와 결합하여 나타난 혼종적 양상이 아닌가 한다.

된다. 부도는 병술년(1886년)에 열 살이라고 하였는데[23], 1876년생인 전낙청의 나이와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설정은 이주민 문학의 일반적 특징과도 맞물린다. 회고적 성격이 강한 이주민 문학에서 공간적 배경이 작가의 고향이나 성장기 거주지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24] 전낙청 역시 〈부도〉를 통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가 그려내는 고향의 풍경은 다른 소설보다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우선 소설에 등장하는 칠학산[七岳山], 천태산이나 납청정・서장대 등은 정주에 실재하는 산이다.[25] 그중에서 칠학산은 소설에서 부도의 조상들의 葬地로 언급된다. 부도의 아버지가 극락암에 시주한 덕분에 부도가 태어났으며 '부도'는 부처가 준 자식이란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부도는 외대와 혼인하기로 결심한 뒤 이곳을 함께 방문하는데, 이 대목에서 칠학산 주변 경치와 극락암은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 사방을 살펴보니 일망무제(一望無際)한 벌에 가리움 업는 만리듸양(萬里大洋)이오 팔천척(八千尺)이나 높은 해면(海面)에 긔동 모양으로 닐어서시니 참말 장관(壯觀)이라. 노변(路邊) 석상(石上)에서 약간 쉬이고 다시 닐어나서 올나가니 어듸인지 아지 못하지만 사람의 형상 즘싱의 모양 별에별 모양으로 싱긴 긔암괴석(奇巖怪石)이 천(千)이나 만(萬)이나 헤일 수 업는듸 그 우에 멀구 넉 줄 잇씨 넉 줄이 뒤덥허스니 마[晩]가을 찬기운을 밧은 닙이라 먹물 빗츨 씌엿는 간혹 밝긋 밝긋한 닙이 이스니 두말 업는 옷이라. 청강(淸江) 구슬 갓흔 물 한 목음식 마시고 반석상(磐石上)에 안저 사방을 삷히니 쳥쳥(靑靑)한 숑빅(松柏)은 예기저기서 위엄(威嚴)을 썰더리고 자홍(紫紅) 단풍(丹楓)은 사이사이 석게 서스니 다른 곳은 소도(蕭條)한 경식(景色)이 잇지만 이곳은 번화(繁華)한 긔상(氣象)이 별건곤(別乾坤)이라. 그 샌일가? 힌 국화(菊花)가 덥혀스니 미인(美人)의 얼골에 분칠한 듯하고 붉은 닙이 씨여스니 연지(臙脂)을 발은 듯한지라.[26]

---

23) 부도가 삼열암에서 물에 빠진 홍과 외솔을 구하자 외대가 이름과 나이를 묻는 장면에서 '열 살'이라고 대답하는데, 이 일이 있고 얼마 뒤에 괴질이 퍼진다.

24) 이은숙,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에 나타난 고향의식과 그 지리적 의미」, 『문화역사지리』 제16권 1호, 문화역사지리학회, 2004, 186면.

25) 이들 지명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등에서 확인되며,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주군」조에도 잘 정리되어 있다.

위 인용에서 묘사하고 있는 칠학산[七岳山]은 너른 평야에 산이 우뚝 솟아 있고 앞으로는 바다가 인접해 있다. 해발 365m의 칠악산을 팔천 척 높은 산이라고 한 것은 과장되었지만, 산 앞쪽에 너른 평야와 바다가 있는 것은 실제 환경과 부합한다.[27] 늦가을 칠학산의 경치는 멀리 이끼에 뒤덮인 기암괴석이 층층이 늘어서 있고 가까이는 붉은 단풍과 푸른 송백이 어울려 있고 국화가 곳곳에 피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아마도 전낙청이 기억하는 칠학산 풍경이라고 할 수 있다.

외대와 부도가 칠악산에 다녀온 사실을 안 홍은 자신도 칠악산에 가고 싶다고 조르는데, 이때 부도는 홍에게 칠학산 경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칠학산[七岳山]은 ᄒᆡ면(海面)에 팔천쳑(八千尺)이나 놉흔 산이라. 영유 와룡산과 오산 뎨석산이 압혀 서스니 맛치 원님 힝차(行次)에 젼ᄇᆡ사령(前陪使令) 모양이라. 그 외 소소한 산은 투종(追從) 모양이다. 그 상상봉에 크지ᄂᆞᆫ 못하지만 무뎨항(無制限)의 눕이 잇고 초탁(草澤)에 삼티 모양으로 된 사원(寺院) 긔지(基址)가 이스니 극락암이 잇ᄂᆞᆫ 곳이라. 암자 압혀 큰 사음 이스니 하졀(夏節)에ᄂᆞᆫ 빙경(氷晶) 갓치 차고 동졀(冬節)에ᄂᆞᆫ 비랑터럼 더우니 차고 더운 거ᄉᆞᆯ 마음ᄃᆡ로 할 것이오 그 물 흐르ᄂᆞᆫ 길은 텬연젹(天然的) 돌노 수통(水桶)이 되어스니 쳔만련(千萬年)을 흐르나 마서할 넘네(念慮) 업고 그 물 흐르ᄂᆞᆫ 형상을 보면 ᄇᆡᆨ룡(白龍)이 달니ᄂᆞᆫ 듯하며 쳔이나 만이나 되ᄂᆞᆫ 긔암괴석(奇巖怪石)은 형형ᄉᆡᆨᄉᆡᆨ(形形色色)으로 만물의 형상을 표시하고 반석이 녀기뎌기 잇서 구경군의 자리가 되여스니[28]

부도는 위 장면에서도 칠악산을 해발 8천 척이라고 하면서 영유의 와룡산과 오산 제석산이 전배사령처럼 앞에 서있다고 했다. 지도를 통해서 오산 제석산이 칠악산 인근에 있는 것이 확인되며, 이 근방에서는 칠악산이 가장 높은 것도 확인된다.[29] 또한 상상봉에 늪이 있다고 한 위의 서술은 칠악산 정상에 龍池가

---

26) 『부도』, 314-5면.

27) 「정주군」,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A0%95%EC%A3%BC%EA%B5%B0&ridx=0&tot=1419(2020. 9. 28. 검색) 참조.

28) 『부도』, 320면.

29) 영유의 와룡산은 확인되지 않는다. 영유는 평안남도에 있고 와룡산은 박천에 있는 산만 확인되는데, 칠악산 서쪽의 산을 잘못 말한 것이 아닌가 한다.

있어 가뭄에 비를 빈다고 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30]과 부합한다.

외대는 칠학산 경치에 빠져 부도에게 혼인 후 극락암에서 함께 살자 하는데 부도는 외대에게 절은 불지라서 살 수 없고 자운동이 살 만한 곳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 곳은 불디(佛地)인 고로 속인(俗人)이 ᄉᆡᆼ활(生活) 못한다. 그 넘에 자운동은 마음ᄃᆡ로 ᄉᆡᆼ활(生活)할 수 잇다. 그 ᄲᅮᆫ일가 극락암 경처보다 더 조타. 안주(安州) 병영(兵營) ᄃᆡ취ᄐᆡ(大吹打)가 들닌다. 약산(藥山) 동ᄃᆡ(東臺)가 것너다 보인다. 참말 흉금(胸襟)이 솨락(灑落)한 곳이다. 풍딘(風塵) 소식을 만져 알고 잇ᄂᆞᆫ 곳이다. 봉화ᄃᆡ(烽火臺)가 그곳에 잇다.[31]

칠학산 자운동에서는 영변에 있는 약산 동대가 보이고 남쪽으로는 안주 병영에서 군졸이 훈련하면서 부는 대취타 소리가 들린다고 하였는데, 동쪽으로 429m의 약산 동대가 보이고 남쪽으로는 바로 청천강 너머로 안주 병영이 있기에 대취타 소리가 들리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칠악산 남쪽에 봉수대가 있었던 것도 지도나 문헌상으로 확인된다.[32]

또한 소설에서는 주인공 부도가 처음 외대를 만난 삼열암이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 이곳은 유명한 삼녈암이라. 한편은 큰 길이오 한편은 쳥강인ᄃᆡ 그드다 큰 바우 세 ᄀᆡ가 잇스니 하나은 웃둑 닐어서고 하나은 세우드름하게 눗고 하나은 널은 반석(盤石)이요, ᄯᅩ 그 겟헤 찬 ᄉᆡ음물이 이스니 그 물이 이상하야 일긔(日氣)가 차도록 물은 더 더워지고 일긔(日氣)가 더울사록 물은 더 차지니 엄동극한(嚴冬極寒)여ᄂᆞᆫ ᄇᆡᆨ도(百度) 이상이 올나가고 삼복혹열(三伏酷熱)에ᄂᆞᆫ 이십도 이하에 ᄂᆡ려가니 작란조하하ᄂᆞᆫ 아히놈들이 비암[蛇]을 잡아다가 네흐면 곳 얼어 죽ᄂᆞᆫ 찬 물이스니[33]

---

30) 「정주목」, 신증동국여지승람,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299A_0530_010_0090(2020. 9. 28. 검색).
31) 『부도』, 325면.
32) 규장각 소장 「정주지도」의 기록이나 고려대 소장 지도를 참조할 때 칠악산 봉수가 산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3) 『부도』, 28면.

작자는 청강 옆에 세 바위가 나란히 있는 삼열암과 그 곁의 샘물을 그린 듯 묘사하고 있다. 삼열암 옆의 '청강'은 납청강 혹은 청정강, 靑飛灘이라고도 불리는 長水灘이 아닌가 한다.[34] 삼열암이나 그 주변의 경치가 실제와 얼마나 부합되는지는 확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삼열암' 자체가 작자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고향 정주의 장소라는 점은 틀림없는 듯하다.

그렇다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역시도 상당수가 작자가 기억하는 인물은 아닐까? 이와 관련해서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전낙청의 소설 〈오월화〉와 〈구제적 강도〉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오월화〉과 〈구제적 강도〉의 주인공인 LA하이스쿨 학생 잭 던은 전낙청의 셋째 아들 잭 던과 일치하며 그의 누이로 등장하는 엘리자벳이나 이소, 오마스는 바로 실제로 전낙청의 자녀들이자 잭 던의 누이이고 동생들이다.[35] 이로써 전낙청이 자신 주변의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소설을 지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월화〉 등에서 배경으로 등장하는 리버사이드는 작자가 이민 후에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작자의 성향으로 본다면, 전낙청이 자신의 고향을 배경으로 한 〈부도〉에서도 실재했던 인물을 차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부도〉에서 전낙청이 직접 만났을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인물로는 오가구를 들 수 있다. 소설 서두부터 등장하는 오가구는 작가가 지은 〈홍중래전〉에도 등장한다. 〈홍중래전〉에서 오가구는 영변의 향임 출신 오천성과 의주 출신 무당 박씨 사이에서 태어나며, 홍중래 등 서북 지식인과 궁랑백, 독고랑 등 서북무인들과 함께 서북인이 차별 받는 세상에 대해 불만을 품고 개혁을 꿈꾸지만 준비가 미흡한 탓에 실패한다.[36] "이ᄯᅢ 쳥원션ᄉᆡᆼ 오가구씨가 임오군변을 지ᄂᆡᆫ 후 일ᄉᆡᆼ 경륜이 구룸 ᄉᆞᆺ과 물걸픔이 되니 그만 락망이 되ᄂᆞᆫ지라."로 시작되는 〈부도〉의 서두는 〈홍중래전〉의 내용과 연결된다.

인물을 매개로 작품이 연결되는 양상은 전낙청의 〈홍경래전〉과 〈홍중래

34) 규장각 소장 「정주지도」에는 '靑飛灘'이라고 표기되었고, 「동여도」에는 '長水灘'이라고 하였다. 뒤에서 인용하는 칠악산 풍경에서도 청강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칠악산 인근을 흐르는 장수탄을 청강이라고 지칭했을 가능성이 높다.
35) 황재문, 앞의 글, 2018, 363-365면.
36) 이지영, 앞의 글, 2018b 참조.

전〉 사이에도 나타난다. 〈홍중래전〉의 주인공 홍중래는 〈홍경래전〉에서 홍경래와 함께 반란을 도모했던 홍문거의 후손으로 나온다.[37] 〈오월화〉나 〈구제적 강도〉의 사례로 볼 때, 〈홍경래전〉·〈홍중래전〉·〈부도〉의 등장인물이 연결되고 있는 것은 실존인물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수 있다.

소설에서 오가구는 醫員인데 병술년 괴질이 유행했을 때 避病 가지 않고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본다. 병술년 괴질은 바로 〈덴동어미화전가〉에도 언급되어 있는 '콜레라'이다.[38] 1886년 6월 10일과 23일, 7월 5일 『고종실록』 기사에는 전염병이 성하여 別厲祭를 지내도록 명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7월 16일 경 정주 사람이 삼남에 내려가다가 평양에서 삼남에 전염병이 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고 한 〈부도〉의 내용과도 일치한다.[39] 이처럼 소설의 내용이 역사적 기록과 부합하는 것을 볼 때, 서당 훈장이면서 의원인 오가구는 전낙청이 기억하는 실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부도가 일했던 제열이네 식구 역시 가공인물은 아닌 듯하다. 제열이는 강변에서 정주로 이주한 富商으로 등장하는데, 정주 목사인 이한영은 제열이네에게 향임을 팔아 돈을 받고자 하나 정주 향청에서 반대하여 무산되고 대신 무청 소임을 맡기면서 돈을 요구한다.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 제열이 형뎨(兄弟)가 몃만 랑 직산(財産)이 잇다고 렴문(廉問)이 들어오니 그야말노 살진 양이 안으면 기림진 송아지라. 향직임(鄕齋任)을 쳥하야 의론(議論)한즉 거절하ᄂᆞᆫ지라. 그 리유(理由) 물으니 직임(齋任)이 ᄃᆡ답하기을 "최제묵의 십만(十萬)도 거절하얏ᄂᆞᆫᄃᆡ 황차(況且) 제열이 형뎨 수만랑(數萬兩) 직산(財産)일이요? 허향(許鄕)하ᄂᆞᆫ 법측(法則)이 못 살아서도 삼ᄃᆡ(三代)은 호역하고 친족은 적어도 열 집은 되야 허향(許鄕)하ᄂᆞᆫᄃᆡ 제열이로 말하면 직산(財産)은 넉넉하지만 타관(他官)서 이곳으로 이거(移居)한 지 당ᄃᆡ(當代)요, 친족으로 말하면 부자 형제 ᄲᅮᆫ이라. 돈이 아모리 귀한들 법(法)밧게 일을 할 수 업다"고 거절하니 할 수 업서 무텽(武廳) 소임(所任)을 식히고 몃

37) 같은 글.

38) 김하라, 「〈덴동어미화전가〉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7, 414면.

39) 『부도』, 40-41면. "칠월 십룩일 저럭이라. 서울 가든 ᄇᆡ디가 삼남 일ᄃᆡ에 괴질이 시작하야 물미듯 봉산까지 왓ᄂᆞᆫ듸 길이 ᄆᆡᆨ혀 가지 못하고 도라 오노라고 하니 이 일을 관부에서ᄂᆞᆫ 십에일 전에 알앗지만 무ᄉᆞᆷ 의외지변이 이슬가 겁이 나서 뭇어두고 광포치 안아스니 누가 알니오?"

빅랑 먹을 싱각으로 둥군(中軍) 불너 의론하니 둥군은 궁도(窮途)에 든 중군이라 두말 업시 허락하고 차립을 쩌 올니니 원이 답인(踏印)하야 보닉니라.[40]

정주 목사는 향임을 팔아서 몇 만 냥을 받으려고 했는데, 향재임의 반대로 이를 이루지 못하자 몇백 냥을 받고 제열에게 武廳의 소임을 시킨다. 이러한 행태에 제열이는 "돈이 잇서도 못살 세상이야. 근검데축(勤儉貯蓄)하야 두고 밥술이나 먹는다고 빅가 압하서 둥군이니 길죽군이니 종에 조각 한 당 주고 몃천 랑 쎄아슬여 하니 살 수 잇나"하면서 반감을 드러낸다. 賣鄕을 둘러싼 신구 鄕任의 갈등과 사또와 鄕民의 갈등은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한 바 있어,[41] 소설에 그려진 제열이네 집안의 상황은 당시 정주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씨 덩주목은 히주 리한영이라 몃 만랑 상랍하고 덩주목을 하야스니"라는 대목이 있는데, 『승정원일기』를 참고하면 이한영이 해주에 있었다는 사실과 1886년에 이한영이 정주목사를 한 사실이 모두 확인된다.[42]

이밖에도 부도는 집안이 가난하여 富商의 상점에서 사환노릇을 하는데, 이는 작자가 "내가 갑오년(1894년) 전에 상업 명색으로 타도타관에 며칠을 지"[43]냈다고 하는 것과 일치한다.[44] 이러한 양상을 보면, 〈부도〉는 작자의 젊은 시절의 경험과 기억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서 〈부도〉는 1884년에서 1894년까지의 평안북도 정주를 생생하게 서술한다. 향청·서당 풍경·흉년으로 인한 굶주림·병술년 괴질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될 뿐만 아니라 정주의 자

40) 『부도』, 63면.
41) 오수창, 『조선후기 평안도 사회발전 연구』, 일조각, 2002, 10-16면.
42) 『승정원일기』 1882년 11월 27일 기사. "行右承旨李漢永, 時在黃海道海州地."; 1886년 4월 11일 기사. "傳于尹相衙曰, 此時迎送之弊, 不可不念, 向日進上, 不善封進之定州牧使李漢永, 特爲分揀, 姑令戴罪擧行"
43) 『연애와 열애』, 미간행 원고본.
44) 또한 소설의 내용 중 칠월칠석에 부도와 부도의 친구들이 "[갓바위에서] '의복 벗고 그물 둘너 준 후 나무을 주어 불을 푸이고 연게을 쓸이며 밥도 하고 일변 그물을 것어 싱선으로 회을 치니 참말 남자의 노름이라 원릭 그 놈들은 각 상덤에서 사환하는 아희들인듸 나이 열사오세로 륙칠세까지 부동하나 열인이 만흔 고로 조달하여 담빅로 푸이고 술잔식이나 마시는 놈들이라"라고 하였는데, 상점에서 일했던 작자 전낙청의 경력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도』, 272-273면.

연풍경도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밖에도 설·단오·칠석·추석 등의 세시풍속과 市井의 상황도 자세하게 서술되고 있다. 전낙청은 자신이 기억하는 정주의 모습을 소설쓰기를 통해서 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허구적 성취로서의 소설쓰기

앞서 살펴본바, 〈부도〉의 주인공은 작자와 출생연도 및 직업이 유사하며, 소설에서는 작자의 고향 풍경이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부도〉가 전낙청 자신의 삶 자체를 서사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매우 비범한 재능을 지닌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부도의 모습이 실제 전낙청의 모습과 일치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부도의 뛰어난 능력은 상업적 수완을 서술한 대목에서 특히 강조된다. 예를 들어 전라도 배에서 실어온 참빗을 거간꾼 응삼이가 팔러 다니나 아무도 사지 않고 제열이도 사려하지 않는데, 부도는 제품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를 사들이게 하여 큰 이문을 남긴다. 그러나 전낙청의 조카 전경무의 기록을 참고하면,[45] 소설에서 형상화 되고 있는 부도의 모습은 전낙청 자신의 실제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마도 부도의 상업적 수완은 작자가 읽었거나 전해들은 致富談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전낙청의 소설은 강용흘이나 차위석의 소설과는 차이가 있다. 이들의 소설은 다소 허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의 기록에 가까운 자전적 소설이다.[46] 그러나 〈부도〉의 경우에는 전낙청이 경험한 것이나 보고 들은 것을 반영한 것은 분명하지만, 주인공 부도의 행적은 전낙청의 실제 경험으로 보기 힘든 부분이 많다.

수무·외대·우목·란교 등 등장하는 여러 여성들도 작자의 기억 속에 남

45) 전경무의 *Quest in Exile* 에서는 전낙청의 상업적 수완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전경무는 전낙청이 여러 번 실패를 거듭했다고 하였다.

46) 강용흘과 차위석 등의 자전적 소설에 대해서는 홍경표, 「미주 한인 이민소설 연구—초기 이민 세대의 자전적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78집, 한국어문학회, 2002 참조. 김욱동은 강용흘 작품을 자서전으로 보는 시각을 비판하면서 허구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김욱동, 앞의 책.

아 있는 누군가의 모습을 수용한 것일 수 있으나 작자 자신의 체험과는 거리가 있는 듯하다. 주인공을 향한 여러 여성들의 구애는 전낙청의 〈홍경래전〉과 〈홍중래전〉·〈오월화〉·〈구제적강도〉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작품에 따라 주인공이 역사의 영웅으로 형상화되기도 하고 가난한 상점 사환이나 차별 받는 이민 청년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어느 경우건 주인공 주변의 여성들은 주인공을 둘러싸고 애정을 갈구한다. 이러한 내용은 주인공을 '비범한 인물'로 그리려는 작자의 의도인 동시에 작자가 소망하는 자신의 모습일 것이다. 따라서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들과의 파격적인 사랑은 경험의 기록이기보다는 작자의 소망으로 보인다.

실존인물을 등장시키면서도 허구화하는 방식은 전낙청의 〈홍중래전〉에서도 나타난다.[47] 〈홍중래전〉에서 홍중래는 홍경래를 연상케 하는 인물이면서도 그와는 시대를 달리한 가공의 인물이다. 마찬가지로 〈부도〉에서도 전낙청이 자신 및 자신 주변의 인물들을 허구화하여 등장시켰을 것으로 짐작된다. 가난하고 궁핍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주 노동자 전낙청에게 소설은 허구적 성취의 수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낙청이 〈부도〉를 통해서 성취하려던 것이 '사랑'만은 아닌 듯하다. 이 점은 〈구운몽〉을 지었다고 믿는 김춘택을 이태백보다도 뛰어난 문장가라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는데,[48] 오가구가 부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는 것과 대응된다.

> ᄂᆡ가 근일(近日) 그 놈이 ᄒᆡᆼ동(行動)을 살피고 두 가지로 결덩(決定)하야스니 하ᄂᆞᆫ 김춘ᄐᆡᆨ(金春澤)의 후계자(後繼者)가 될 듯하고 하ᄂᆞᆫ 홍티락의 ᄃᆡ신될 듯ᄒᆞ네. 그 놈의 ᄌᆡ조 보아서은 김의 후계(後繼)가 럭럭하나 자네 형세(形勢)로 학ᄌᆞ(學者)을 공급(供給)할 수 잇나? 글언즉 허랑방탕(虛浪放蕩)한 시졍(市井)의 ᄉᆡᆼ당

47) 이지영, 앞의 글, 2018b.

48) 『부도』, 113면. "리ᄇᆡᆨ(李白)이 봉황ᄃᆡ 짓기를 최호가 황학루 짓듯 지어시니 최호가 아무리 문장인들 입을 벌닐 수 잇스손야? 글어다가 몃ᄇᆡᆨ년 후 우리나라 문장 김춘ᄐᆡᆨ이가 둥국 갓다가 봉황ᄃᆡ에 올나 본즉 리ᄇᆡᆨ의 글이 잇ᄂᆞᆫᄃᆡ 그 률(律)노 인하야 다른 사람은 벙어리가 될 모양이라. 글ᄋᆡ 리ᄇᆡᆨ의 글 전부 여들 작여서 닐곱을 그ᄃᆡ로 ᄶᅦ여 쓰고 마즈막 작만 지엇ᄂᆞᆫᄃᆡ 그 김춘ᄐᆡᆨ의 글이 리ᄇᆡᆨ의 글보다 승한 고로 후세 문장들이 리ᄇᆡᆨ의 봉황ᄃᆡ 김춘ᄐᆡᆨ의 봉황ᄃᆡ 두 ᄃᆡ로 인증하고."

(生長)하고 본즉 자연 그 길노 쓸녀갈 터이고[49]

오가구는 어린 부도의 비범함을 보고 '김춘택의 후계'가 될 것이라고 칭찬하지만, 가난한 부도의 형편상 학문을 할 수 없어 시정에서 방탕한 인물로 생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오가구의 말을 통해 문장가로 인정받고 싶은 작자의 욕망이 부도에 투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뛰어난 문장력을 지녔지만, 市井에서 생장한 탓에 인정받기 어렵다는 말은 바로 작자 스스로에 대한 평가이자 한탄이다. 여기에서 전낙청이 〈부도〉를 김춘택의 〈구운몽〉에 빗대고 있는 이유도 찾을 수 있다. 전낙청은 〈구운몽〉과 같은 소설을 창작함으로써 '김춘택'처럼 인정받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김춘택처럼 인정받고자 했으면서도 소설에서 부도는 '김춘택의 인격이 서푼 짜리도 못되며 아내에게 괄대를 받고 아내를 소박했다'고 비판하였다. 김만중이 아닌 김춘택을 〈구운몽〉의 작자로 알고 있는 것은 조선시대 다른 기록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50] 김춘택의 부부 불화를 〈구운몽〉 창작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전낙청의 추정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추정은 김춘택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한다. 전낙청의 아내는 이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신경쇠약에 걸려 자살했다. 전낙청의 조카인 전경무의 기록[51]이나 당시 신문기사[52] 등을 참고하면 이러한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

49) 『부도』, 7면.

50) 『승정원일기』 영조 27년 3월 15일 기사에서는 〈구운몽〉의 작자가 누구인지 묻는 영조의 질문에 申晩, 趙明履가 〈남정기〉와 〈홍백화전〉의 작자인 김만중이 지었다고 답했는데, 『승정원일기』 영조 39년(1763년) 12월 25일 기사에서는 〈구운몽〉을 형조판서 김양택의 從弟, 즉 김춘택이 지었다고 하였다. 당대 사람들이 김만중의 작품을 김춘택의 작품으로 오인했던 것은 김춘택이 김만중의 〈사씨남정기〉를 한문으로 번역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51) 전낙청의 조카인 전경무의 *Quest in Exile* 에는 "had he found any happiness for his wife who had aged untimely through drudgery, loneliness, and poverty, yet who had remained lovely in spirit until these tragic adversuties had cruched her,"; "Seven times she had travelled into the valley of agony," 등의 내용이 있어 전낙청의 아내가 이민 후에 가난과 노동 속에서 고통받다가 정신쇠약에 걸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52) 『신한민보』, 1919. 10. 11., 3면. "으리버싸읻에 직류하던 뎐락청씨 부인은 슈삼삭 동안 신병으로 고통하다가 지나간 토요일에 졍신업시 류리조각과 망치로 젼톄를 쪼아 만신이 샹처 쓴인 고

그렇다면 〈구운몽〉의 작자가 부부 불화를 겪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투사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아내의 자살 이후에 전낙청이 느꼈을 상실감이나 좌절감이 〈부도〉의 창작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은 소원을 성취 못하고 원하는 의사를 발표"했다는 부도의 말은 전낙청이 〈부도〉를 창작한 동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낙청은 풍요의 나라 미국에 대한 환상 속에서 온 가족을 이끌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상상했던 것과 크게 달랐다. 그의 가족들은 가난과 고된 노동, 인종차별에 시달렸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는 자살했다. 미주 이민의 판타지가 깨진 후 전낙청은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에게 소설은 절망적 상황에서 '글 쓰는 자신'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낙청은 김춘택 같은 문장가를 꿈꾸면서 소설을 창작했으면서도, 〈구운몽〉과 같은 결말을 선택하지 않았다. 자신을 인정받을 수 있는 허구적 가상공간으로 소설을 선택하였으면서도 비극적인 결말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완의 결말 내지 비극적 결말은 조선을 배경으로 한 〈홍경래전〉이나 〈홍중래전〉에서도 나타난다. 아마도 소설을 통해서 허구적인 성취를 상상하였지만 상상을 통해서 '결말'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인식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상상된 허구가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비관적 인식이 〈부도〉에서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이상으로 1세대 이민자였던 전낙청이 쓴 장편소설 〈부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부도〉는 주인공 부도가 여러 기혼 여성들과 사랑을 나누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인공이 여러 여성과 사랑하는 내용은 〈구운몽〉을 비롯한 고소설의 영향으로 보인다. 〈부도〉에서 작자는 〈구운몽〉과 〈서상기〉를 비교하면서 소설의 허구적 성취와 현실의 비극적 결말을 대비시키고 있다. 그리고 〈앵앵전〉과 〈홍루몽〉의 비극적 사랑과 〈구운몽〉의 허구적 성취를 접

로 의사를 청하여 응급슈을 당하고 병원에 인원하여 치료듕이나 아직 싱사를 미판이라더라."

목시킴으로써 새로운 사랑이야기를 창작했다.

또한 〈부도〉는 작자 자신과 출생연도가 비슷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고향 정주의 풍경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다. 고향에 대한 회고적인 성향은 일반적인 이민자 소설에서 나타나고 있어 〈부도〉를 전낙청의 자전적 소설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상업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거나 여러 여성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주인공의 면모는 작자의 실제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작자는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사실적인 공간을 그려내고 있으면서도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부도〉는 강용흘의 자전적 소설과는 차이가 있다.

전낙청은 〈부도〉를 통해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일을 허구적으로 성취하는 동시에 '소설가'로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했다. 이민 이후 고된 노동과 가난, 인종차별에 시달린 전낙청에게 〈부도〉를 쓰는 일은 좌절된 욕망을 허구적으로 성취하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전경무, *Quest in Exile*, 남가주 대학(USC) 도서관 소장 원고본.
전낙청, 『부도』, 남가주 대학(USC) 도서관 소장 복사본.

김욱동, 『강용흘, 그의 삶과 문학』, 서울대 출판부, 2004.
김하라, 「〈덴동어미화전가〉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7, 405-440면.
사진실, 「山戲와 野戲의 공연양상과 연극사적 의의」, 『공연문화연구』 제3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01, 251-322면.
오수창, 『조선후기 평안도 사회발전 연구』, 일조각, 2002.
유선모, 『미국 소수민족 문학의 이해』, 신아사, 2001.
이은숙,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에 나타난 고향의식과 그 지리적 의미」, 『문화역사지리』 제16권 1호, 문화역사지리학회, 2004, 183-196면.
이지영, 「20세기 미주 이민 서북인의 홍경래란에 대한 기억」, 『정신문화연구』 통권15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a, 275-304면.
_____, 「반란에 대한 기억 혹은 기대」, 『고전과해석』 제26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8b, 163-197면.
_____, 「20세기 초 미주 한인 소설에 나타난 판소리 관련 서술에 대한 고찰」, 『판소리연구』 제48집, 판소리학회, 2019, 303-337면.
전우형,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공존: 미주 이민자 전낙청의 사랑에 관한 상상」, 『대중서사연구』 제26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20, 191-219면.
조규익, 「제1세대 재미한인 작가들의 국문소설」, 『우리문학연구』 제11집, 우리문학회, 1998, 297-322면.
_____, 「제1세대 재미한인 작가들의 소설」, 『숭실어문』 제15집, 숭실어문학회, 1999, 131-183면.
최진아, 「당대 애정류 전기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2.
홍경표, 「미주 한인 이민소설 연구—초기 이민세대의 자전적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78집, 한국어문학회, 2002, 591-613면.
황재문, 「〈구제적 강도〉 연구: 1세대 재미한인의 체험과 문학적 혼종성」, 『춘원연구학보』 제13호, 춘원연구학회, 2018, 345-384면.
황재문 편역, 『구제적강도—주석본』, 소명출판, 2020.

「고지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db.snu.ac.kr/.
「승정원일기」, 국사편찬위원회, http://sjw.history.go.kr/.
「신증동국여지승람」,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신한민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encykorea.aks.ac.kr/.
「한국학자료센터 한국학자료포털」,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kostma.aks.ac.kr/.

【Abstract】

A Study on *Budo*, the novel of first generation Korean American in the early 20th century

Yi, Ji-Young*

Budo is the full-length novel written in Korean by Nak chung Thun (1876-1953), the first generation Korean American. *Budo* is a love story of hero Budo and heroin Oe-dae, depicting delicately how they fall in love. Budo and Oe-dae could not get married because of both parents's opposition, nevertheless they continue their love. In addition, Budo gets in love with other married women besides Oe-dae, so the women who all are married with other man, shares love of Budo. At last Oe-dae died. And Budo and other women disappear and remain stones. *Budo* appears to have been influenced by pre-modern fictions such as *The Cloud Dream of the Nine*, *Romance of the Western Chamber* and *Dream of the Red Chamber*. The love of a man and a plural woman was taken from *The Cloud Dream of the Nine* while the tragic ending of love was from *Romance of the Western Chamber* and *Dream of the Red Chamber*. Thun created a new form of love from such traditional novels. In writing *Budo*, Thun recall his memories in his hometown, Chŏngju, P'yŏngan-do. Through his memory, Thun describes the scenery of his hometown in the late 19th century. But *Budo* is not his autobiography. The hero is fictionalized as the character of extraordinary ability in love and business. After immigration, Thun suffered from poverty and racism, and his wife died in tragic. Because of this situation, for Thun writing a novel was a fictitious achievement of frustrated desires.

Keywords: *Budo*, Korean American, Nak chung Thun, immigrant, Chŏngju, P'yŏngan-do, *The Cloud Dream of the Nine, Romance of the Western Chamber, The Story of Yingying, Dream of the Red Chamber,* fictitious achievement, diasporic fiction.

접수일: 2020.09.28. ‖ 심사일: 2020.10.07. ‖ 게재확정일: 2020.11.22.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hungbuk National Univ.